

# '벼랑 끝' 광주FC, 울산 꺾고 반등 해법 찾을까

연패의 늪에 빠진 프로축구 광주FC가 원정에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 HD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11일 부천FC1995와의 홈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서울전, 강원전에 이은 3연패다. 그 결과 1승 3무 3패 승점 6점으로 리그 12위 (4득점) 까지 하락했다.

현재 10위 김천상무FC (6득점), 11위 대전 하나시티즌 (6득점) 과는 승점차 없이 득실차로 순위가 갈려있다. 다만 상위권과의 격차 역시 크지 않다. 4위 강원FC부터 6위 포항스틸러스는 승점 9점, 7위 제주SKFC는 승점 8점, 8위 인천유나이티드와 9위 FC안양은 각각 승점 7점을 기록 중이다.

이번 8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지난 경기 패배 속에서도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부천전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상대를 몰아붙였고, 슈팅 8개와 유효슈팅 4개를 기록하며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다. 비록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회복 조짐을 보였다.

젊은 자원들의 성장도 긍정적이다. 안혁주, 정지훈, 문민서, 김윤호, 김용혁 등 신예 선수들은 실전 경험을 쌓으며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경고 누적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정호 감독이 벤치로 복귀하고, 주세종과 최

## 19일 오후 2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서 울산과 맞대결 리그 12위·최저 득점·주세종·최정록 등 복귀 '주목'

정록도 다시 전력에 합류하며 팀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결국 관건은 공격력이다. 광주는 올 시즌 7경기에서 단 4골만 기록하며 리그 최저 득점에 머물러 있다. 슈팅 수는 60개로 10위, 유효슈팅은 20개로 11위에 그치는 등 공격 지표 전반이 만족스럽지 않다. 기회를 만들어도 마무리로 연결하지 못하는 데다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가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만큼, 울산전에서는 결정력 회복이 절실하다. 공격 완성

도를 끌어올리고 한 번의 기회를 살려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다.

상대 전적도 나쁘지 않다. 광주는 울산과의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5승 1무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지난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는 울산을 2-0으로 완파하며 좋은 기억도 남겼다.

물론 울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현재 리그 2위에 올라 있는 강팀으로, 외국인 공격자 야고와 말겔의 득점 감각도 살아나고 있다. 다만 울산은 지난 15일 FC서울과의 주중 경기에서 1-4로 패하며 수비 불안도 노출했다. 광주 입장에서는 상대보다 더 긴 휴식을 취한 만큼 체력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벼랑 끝에 선 광주가 울산 원정에서 승점 3을 챙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해 울산과의 K리그1 홈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광주FC 최정록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FC

##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6전 7기' 정윤성 "첫 우승 향해 뛰다"

최고 성적 단식 16강·복식 4강 최근 대회 '금메달 석권' 활약 "응원에 보답하는 플레이 할 것"



19일 광주 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는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투어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 정윤성.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꼭 우승을 차지하겠습니다."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에 출전하는 정윤성(국군체육부대)이 대회를 앞두고 우승을 향한 각오를 드러냈다.

정윤성은 오는 19일 광주 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 단식 예선과 복식 모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한다.

그는 16일 진행된 사전 인터뷰에서 "작년과 같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윤성은 광주오픈에만 6차례 출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회에서 단식 16강, 복식 4강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 꾸준히 출전하며 경험을 쌓아온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을 노린다.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다.

그는 지난 3월 '순천만 국가정원배 순천오픈테니스대회' 단식 우승에 이어 4월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함양대회'에서 단식과 복식 금메달을 모두 석권하며 상승세를 탔다.

다만 직전 출전한 부산오픈 챌린저에서는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정윤성은 이를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지만, 결과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작년보다 경기를 많이 치르며 준비해왔고, 정성윤 감독과 함께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력뿐 아니라 멘탈 관리 역시 신경을 쓰고 있다.

정윤성은 "컨디션이 떨어질 때 답답함이 있지만, 경기 중에는 포인트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며 "미스샷이나 아쉬운 장면을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신 있는 플레이로는 서비스와 포핸드를 꼽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해온 것이 자연스럽게 강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정 상대를 경계하기보다는 모든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윤성은 "챌린저 대회는 더 높은 랭킹으로도 약하기 위한 중요한 무대"라며 "모든 선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열리는 전월국제테니스장 코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센터코트가 넓어 집중이 잘 되고, 바운드가 큰 편이라 공격 시 스피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팬들의 응원 또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윤성은 "최근 경기장 밖에서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있어 놀라기도 한다"며 "선수는 팬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는다"고 웃었다. 이어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을 감사드린다.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며,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 씨름 새 도약 발판... '전용 훈련장' 개장한다

염주체육관 내 '염주씨름장' 개장식 개최...훈련 환경 개선 전통 스포츠 계승...전갑수 시체육회장 '대한협회 감사패'

광주시체육회가 씨름 전용 훈련장 개장으로 지역 씨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염주체육공원 내에서 씨름인들 오랜 숙원이었던 '염주씨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고형근 분부장, 한동훈 부장, 이충엽 수원특례시청 감독, 박승렬 광주씨름협회장, 송승용 부회장, 윤동현 전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염주씨름장은 기존 간이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전용 시설이다. 사무실과 선수 휴식 공간을 증축하고, 경기장 외부에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사업비 5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319.24㎡ 규모의 씨름 전용 훈련장을 조성했으며, 샤워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했다. 이 시설은 지역 씨름선수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지훈련 유치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렬 광주씨름협회장은 "훈련 공간이 넓어지고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선수들의 훈련 효율이 높아지고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 씨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전갑수 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씨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뜻깊은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광주 씨름육성학 교인 전창식 회장, 최재욱 서산초 교장, 김성섭 광주중 교장, 정남주 호남대 학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취임 이후 우수 선수 및 전문지도자 지원, 유소년 씨름

단 육성, 훈련시설 확충 등 지원을 이어오며 광주 씨름의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염주씨름장 증축을 통해 지역 씨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전국대회 참가 선수단을 직접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은 "전갑수 회장의 씨름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씨름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유소년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전갑수 회장은 "씨름은 단순한 체육 종목이 넘어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광주 씨름은 물론 대한민국 씨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5일 오후 염주체육공원 내에서 씨름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염주씨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 전남장애인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A등급' 문체부 공모서 광양장애인스포츠클럽 최고등급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장애인 체육 기반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신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광양장애인스포츠클럽이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등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우수 클럽을 선별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양장애인스

포츠클럽은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역량을 입증하며 최종 선정됐다.

해당 클럽은 도장애인체육회의 1차 요건 심사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데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최종 적합성 심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서를 공식 발급받게 됐다.

광양장애인스포츠클럽은 론볼, 당구,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을 운영하며 공스포츠클럽으로서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우수한 시설 환경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방화 확보와 회원



'2026년 신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광양장애인스포츠클럽이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전문선수 육성과 장애인형 맞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에서는 2025년 순천어울림스포츠클럽과 여수마루빛스포츠클럽에 이어 광양장애인스포츠클럽이 세 번째로 지정되면서 도내 장애인 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광양장애인스포츠클럽이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정부 공인 지정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